

세계 최대 페파피그 테마파크 상하이에 들어선다

창싱도에 4500억원 투입 2027년 오픈



아시아 최초의 페파피그 테마파크가 상하이 총밍 창싱도(长兴岛)에 들어선다.

24일 상하이 시정부 공식 계정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상하이 총밍구는 페파피그 테마파크 프로젝트가 상하이 총밍구 창싱도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총면적 290무(亩, 약 19만㎡)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파피그 테마파크는 오는 2027년 완공 후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상하이 페파피그 테마파크는 애니메이션 속 풍

부하고 다양한 장면을 현실로 옮기고 여기에 상하이 지역적 특색을 결합해 독특한 놀이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독립된 페파피그 테마 호텔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숙박, 외식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파피그 테마파크가 들어설 창싱도는 상하이 고유의 경관을 뿜내는 관광 섬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24억 위안(45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페파피그 테마파크가 정식 오픈하면 상하이의 세 번째 해외 IP 테마파크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아동용 애니메이션 페파피그는 지난 2015년 중국에 처음 소개된 뒤 중국 현지 유아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上海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1분기 오피스 공실률 20.9% 오피스 공급 과잉 '레드라인' 넘어

기업의 임대 수요가 신규 공급 면적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상하이 A급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4일 차이신(财新)은 최근 여러 시장조사기관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상하이 오피스 임대 시장의 순 흡수량과 임대료 수준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하면서 공실률이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추세와 마찬가지로 상하이 오피스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로 임차인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다이더량항(戴德梁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하이 A급 오피스 순 흡수량은 8만 5800㎡로 전 분기 대비 9.86%, 전년도 동기 대비 3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하이 A급 오피스 시장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투입되면서 신규 공급 면적은 10만 8700㎡에 달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는 공급 증가, 수요 약화로 올해 1분기 상하이 A급 오피스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1.1%p, 전년 대비 2.9%p

상승한 20.9%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피스 시장 공급 과잉의 '레드 라인'으로 여겨지는 20%를 웃도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 상하이 푸시 지역 중심 상업지구의 공실률 상승 폭이 전 분기 대비 0.7%p로 가장 컸다. 푸동 지역 중심 상업지구의 오피스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1%p 상승했으나 비중심 상업지구는 0.7%p 하락했다.

공급과 수요 관계가 엇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상하이 사무실 소유주는 세입자 유치를 위해 가격을 내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CBRE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임대료는 계속 하락해 1분기 상하이 A급 오피스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7% 하락한 월 266원/㎡까지 떨어졌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사무실 재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이 수치는 최근에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 역대 같은 기간 공급 최고점을 앞두고 있다. 화동 지역 컨설턴트 겸 거래 서비스 부문 책임자 장 위에(张越)는 "앞으로 6개월간 상하이 A급 사무실 시장에 약 96만㎡의 신규 공급 물량이 들어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上海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서원' 개관



4월 23일 세계 독서의 날을 맞이해 상하이 흥커우구 허핑공원(和平公园) 내 허핑서원(和平书院)이 정식으로 개관했다고 24일 신민만보(新民晚报)가 전했다.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개방하는 공원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수풀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환경에서 도시공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평화서원은 흥커우가 만드려는 '시민의 도시', '공원도시'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문화와 녹색을 융합, 읽기와 걷기에 적합하고 생태와 삶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공문화공간 프로젝트

트다. 지난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기간행물 테마서점인 평화공원-간다사(干茶社)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뒤 상하이 최초로 도시공원 독서 클러스터를 조성한 것이다.

테마관, 예술관과 센터 독서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테마관은 평화서원 종합관, 평화서원 어린이관, 평화서원 간다사로 나누어진다. 총 면적은 1만 평방미터이며 상하이 탄소비관(碳秘馆)도 올해 안에 개방한다.

상하이 최초의 공원 내 도서관인 만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모색 중이다. 공공 독서의 경계를 도서관에서 녹지공원으로 확대하고, 현대 독서의 다양성을 반영해 여러 가지 독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24시간 개방되는 평화공원의 특성과 주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을 위한 24시간 독서 공간이 될 예정이다.

和平书院: 虹口区天宝路891号16

상하이 디즈니 "상업 촬영 안돼"

최근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상업용 사진작가 여러 명을 퇴장 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상유신문(上游新闻)에 따르면, 중국 한 누리꾼은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小红书)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연간 회원 카드를 보유한 상업용 사진작가 여러 명을 퇴장 조치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디즈니랜드 측이 이들의 연간 카드 정보를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두었다"면서 "디즈니랜드는 앞으로 상업용 사진작가의 출입을 금지하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디즈니랜드 관계자는 "리조트 내 사진 촬영이 개

인 소장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일 경우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는 관련 조항이 있다"면서 "연간 회원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이 잠시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 상업용 사진작가의 연간 회원 카드가 취소되거나 입장 자격이 제한된 사실 여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 오도 지난해 4월 허가받지 않은 상업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같은 해 6월 베이징 고궁박물관도 상업 촬영 등 관광 목적이 아닌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더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citadines APART' HOTEL

시타딘 레지던스 호텔

시타딘 호텔은 싱가포르 서비스드 레지던스 전문기업인 The Ascott Group 계열사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주요 도시에 글로벌 체인망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 주방기구 ● 세탁기 ● 위성방송 ● 초고속 인터넷






구 신동원호텔 上海市闵行区虹泉路1101弄3号 **예약문의** 021 3431 6034 Mobile_138 1610 2137